

발포명령자 밝힐 핵심문건 찾을까

국방부 5·18특조위, 기무사 존안자료 일체 확보 분석 착수
‘문서폭탄’ 헬기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역량 집중할 듯

국군기무사령부가 5·18 관련 존안자료 일체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군(軍) 내 유일의 정보기관이자, 5·18유혈진압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5·18에 깊숙이 관여했던 기무사(옛 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 확보로, 집단발포명령자 확인 등 5·18진상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국방부 5·18특조위는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5·18관련 문서 일체를 제공받아 문서 분석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5·18특조위는 문서에 대해 “5·18관련 기무사는 물론 예비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 일체로 분량은 수십 권, 상자로는 쳐도 수십 상자는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다. 다만, 특조위 측은 “문서 제공과 관련, 기무사 측은 ‘기무사가 보유한 5·18관련 문서 전체를 빠뜨림 없이 특조위에 제공했다’는 입장을 자료제공과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무사는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꾸려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총 1146건 2만4427쪽(제5공화국 전사 9권 4902쪽, 5·17전군주요지휘관회의록,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1212관련 문건, 중정의 학원대책방향 등)을 제출했다고 과거사위 종합보고서는 적고 있으나, 5·18특조위가 밝힌 대로 ‘5·18관련 예비부대 문서까지 전체를 제공했다’는 기무사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넘긴 군 자료는 출력된 문서형태로 현재 국방부 내 이견리 국방부 5·18특조위원장 사무실에 보관 중이며 조사위원들의 비밀취급인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문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에 존안 된 5·18관련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으나 기무사가 파기처분했는지, 이번에 5·18특조위에 넘긴 자료에 포함했는지 여부는 조만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과거사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기무사 존안자료 중 미공개 10여권이 핵심이란 지적은 군과 기무사의 사정을 잘 모르는 주장”이라며 “무엇이 미공개됐다, 무엇이 핵심이라는 것은 설부는 단정이다. 기존 자료와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나는 505보안대(5·18당시 광주·전남 관할 보안부대) 자료를 중점으로 봤는데, 이번에 기무사 측이 보유 문서 전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5·18 관련 핵심 문건이 발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기무사 존안자료 분석 준비작업과 함께 국방부 5·18특조위는 계통대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육군문서보존소, 공군본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문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시 군 관계자, 5·18관련 목격자 및 자료 보존인물 등을 상대로도 전국을 무대로 자료 확보와 인터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5·18특조위의 움직임과 별개로 안팎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위원장 포함 36명(법조인, 군·경찰

관계자, 민간조사위원 등)의 인력으로 80일간의 활동기간 내에 부여받은 임무에서 성과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제한된 인원과 활동기간이라는 물리적 한계 탓에 조사위원들이 저마다 수만쪽에 달하는 ‘문서폭탄’을 감당 못하고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 5·18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진상규명을 지시받은 ▲5·18 헬기사격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존안자료에 매몰되지 않고 1980년 5~6월 광주에 투입됐던 25~26개 부대의 작전일지와 육본, 국방부 자료 확보와 분석에도 힘을 쏟아야한다는 조언도 있다. 30여년간 5·18을 추적·연구해온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당시 투입됐던 군부대의 작전일지조차 공개되지 않은 게 수두룩하다. 군 문서 분석의 기본은 작전일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건리 국방부 5·18특조위원장은 “기무사 존안자료를 포함해 군에서 확보한 자료와 기존 공개자료, 각종 인터뷰 자료, 제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알립니다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공모



중국 용정 운동주 서시

광주일보사·‘시산맥’ 공동

운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운동주는 암울한 일제 식민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시인입니다. ‘서시’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던 결연한 의지가 깃들여 있습니다.

올해는 운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운동주 서시 문학상’을 제정한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은 올해 생가와 묘소가 있는 중국 용정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오는 등 시인의 나라사랑과 시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며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운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도 공모합니다. ‘서시’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구현할 문학상에 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운동주 서시 문학상

- 대상 : 등단 15년 이상으로 운동주 문학정신을 바르게 실천하는 시인
- 선정대상 : 2016년 계간 겨울호(월간 9월호) ~ 2017년 가을호(월간 8월호)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 상금 : 1000만원(11월 시상 및 수상작품집 발간)
- 심사일정 : 9월에 심의위원회 추천한 시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10월 중 본심

운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

- 공모분야 : 시(한글) ■ 대상 : 등단 10년 이상으로 해외 거주하는 시인
- 응모 작품 수 : 5편 이상 10편 이내
- 마감 : 2017년 9월 30일 ■ 상금 : 300만원
- 응모 요령 : 원고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약력, 전화번호 기재)
- 보낼 곳 : poemmtss@hanmail.net(문의 062-220-0624, 02-764-8722)

光州日報社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관련기사 4면>

이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찬성 130석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당론 반대 입장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선다. 현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여권으로선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 장기적으로는 여야 협치의 정착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 직전 이례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데다 민주당의 음소 전략 등이 이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김이수 현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호남 민심의 암묵적인 압박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과반 이상 찬성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찬성 160·반대 134명...국회 본회의 통과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절반 이상 찬성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서울시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된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